

라면·맥주·사이다·콜라...대통령 없는 사이 몽땅 올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먹거리 가격 인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라면, 맥주, 치킨, 햄버거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대통령 선거 전날인 8일에도 사이다와 콜라 등 음료 가격이 뛰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전산 칩성사이다, 펄스콜라, 밀키스, 레스비, 실론티, 솔비, 핫식스 등 7개 제품의 편의점 판매가격을 평균 7.5% 인상했다.

품목별로는 칩성사이다 250ml 캔이 7.7% 올랐고 펄스콜라 1.5ℓ 페트가 3.7% 상승했다. 밀키스 250ml 캔, 실론티 240ml 캔도 각각 10% 인상됐다. 롯데칠성음료의 탄산음료 가격 인상은 2015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인상 대상은 편의점 판매 제품이다. 향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망에서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그동안 원가절감 등 자구 노력으로 가격조정을 억제해 왔으나 비용 상승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채널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설탕, 과당, 캔, 페트 등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유틸비, 물류비 등이 상승하는 등 인상 요인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롯데칠성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최소와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펄스콜라 1.5ℓ 페트의 경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경쟁사 제품보다 여전히 20%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서민들 즐겨찾는 식품가격 최근 일제히 올라

치킨·햄버거도... 소비자들 꿈수 인상에 분통

소비자들은 식품 가격 인상이 끊이지 않자 국정 혼란으로 인한 권력 공백기를 틈타 업체들이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리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정인 설모(32)씨는 “대선으로 정국이 다소 혼란한 틈을 타 이때다 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인다”며 “꿈수 인상은 불매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참에 몸에도 좋지 않은 탄산음료를 끊을 작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씨는 “제품 가격을 올리는 회사는 그 인상 비율만큼 사원들 월급도 올려주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주류와 음료 가운데에는 지난해 11월 오비맥주는 카스, 프리미엄오B, 카프리 등 주요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6% 올렸다. 코카콜라는 같은 달 코카콜라와 원타 출고가를

평균 5% 상향 조정했다. 이어 하이트진로도 하이트와 맥스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33% 올렸다. 라면 가격도 올랐다.

삼양식품은 지난 1일부터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짜짜로니 등 주요 브랜드 제품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4% 인상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신라면, 너구리 등 12개 브랜드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올렸다. 맥주와 ‘단짠’인 치킨값도 마찬가지로. BBQ는 지난 1일 자로 황금올리브치킨 등 10개 품목의 가격을 품목별로 8.6~12.5% 인상했다.

교촌치킨과 BHC 등 다른 치킨업체들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들도 올해 들어 가격을 올렸다.

차(茶) 음료 전문 브랜드 공차코리아,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등이 가격을 인상했다.

패스트푸드로는 1월에 맥도날드가, 2월에는 버거킹이 가격을 올렸다. 그의 자연별곡,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매드포칼리 등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들도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가격을 각각 인상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이어진 먹거리 가격 인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라면, 맥주, 치킨, 햄버거 등 서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대통령 선거 전날인 8일에도 사이다와 콜라 등 음료 가격이 뛰었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음료 판매대. /연합뉴스

장애인 절반 ‘고령가구’ 주거 열악 대책 급하다

고령 장애인 가구 78%가 저소득층...삶의 만족도 떨어져

국토연구원 보고서

장애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고령 가구’이지만 주거 수준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김기나 연구위원은 최근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고령 장애인 주거지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222만 5000가구로 추정되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고령 장애인 가구 비율은 47.3%(105만가구)로 집계됐다. 장애인 가구 중 고령자로서만 구성된 가구는 14.0%에 달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의 비율은 74.1%로, 비(非)고령 장애인 가구의 비율(43.5%)보다 월등히 높았다.

고령 장애인 가구의 거주지는 도시(41.9%), 수도권(39.7%), 광역시(18.4%) 순이면서 도시(68.5%)가 농촌(31.5%)보다 많아 대체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 장애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

율은 78.1%로 일반 가구(35.6%)의 2배 이상이었으며,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대다수인 98.7%가 저소득층이었다.

장애인 가구 중 외부 신체기능 장애 비율은 84.3%인데, 고령 장애인 가구의 경우 이 비율이 94.0%에 달했다.

고령 장애인 가구는 대체로 자가로 보유한 단독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51.5%로 전체 장애인 가구(43.8%)나 일반 가구(37.5%)보다 높았다.

또한 이들의 주택 점유 형태를 봤을 때 자가 비율이 68.3%로 매우 높았고 이외에 민간임대 15.1%, 공공임대 8.4%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다. 고령 장애인 가구가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47점을 기록해 전체 장애인 가구(2.49%)보다 낮았다.

거주 형태별로 자가 거주가 2.58로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가 2.26, 민간임대는 2.13이었다. 특히 아파트와 주택에 민간임대로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만족도는 1.96점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고령 장애인 가구 가운데 임차가구의 월소득 중 월임대료 비율(RIR : Rent to Income Ratio)은 28.3%로 전체 장애인 가구(24.1%)보다 높았다. 또 이들에게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를 물었을 때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86.8%로 전체 장애인 가구(75.4%)보다 높았다.

이들이 주택 내부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욕실(27.6%)이었고 뒤이어 현관(18.5%), 부엌(10.6%) 등의 순이었다.

주택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시설로는 ‘주출입구 계단 경사로’(9.6%), ‘욕실 안전손잡이’(7.3%), ‘현관 문턱 해결’(6.7%) 등이 꼽혔다.

김기나 박사는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은 도배나 장판 교체 등으로 집중돼 이들의 주거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 고령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을 위해 주거비를 경감하고 주택개조 지원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부동산 규제 여파 건축 인허가 면적 감소

올 1분기 4% 줄어 ... 광주는 186.2% 늘어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4%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기 전 건립이 추진된 건물들이 최근 속속 준공되면서 1분기 준공 면적은 작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875만5000㎡로 작년 동기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1% 감소한 1713만5000㎡, 지방은 2.4% 줄어든 2162만㎡로 수도권의 인허가 면적 감소 폭이 컸다.

수도권에서 서울(149.9%)은 증가했지만 경기(-41.8%), 인천(-19.5%)은 감소했고 지방의 경우 광주(186.2%)는 늘었으나 전북(-68.9%), 경남(-41.7%)은 줄었다.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거용 건물의 인허가 면적이 대폭 줄었다.

용도별 건축 허가 면적에서 주거용은 1601만5000㎡로 작년 1분기보다 12.1% 감소했다. 상업용은 1059만2000㎡, 공업용은 355만5000㎡로 각각 3.5%, 7.5%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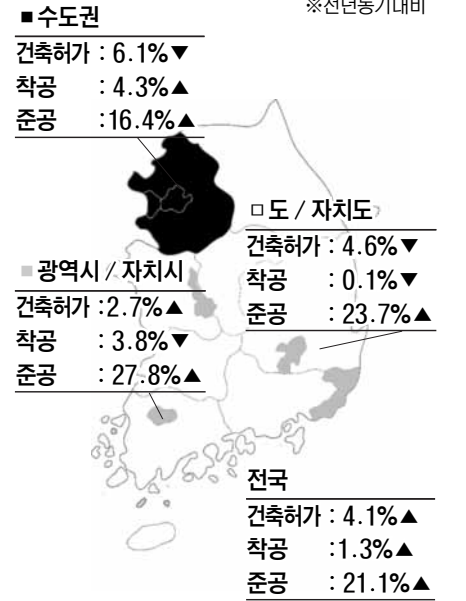
그러나 건축물 준공 면적은 앞서 수년간 추진된 건설 물량 증가해 지방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물 준공 면적은 앞서 수년간 추진된 건설 물량 증가해 지방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 면적은 수도권이 1409만2000㎡로 작년보다 16.4%, 지방은 1841만8천㎡로 24.9% 증가해 지방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 착공면적도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879만3000㎡로 집계됐다.

■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17년 1분기)



자세한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